

데스크사자



채희중 편집부국장·사회부장

5월이 간다. 광주는 5월이면 철저히 고립된 채 외롭게 죽어갔던 '1980년' 그날의 악몽과 마주한다. 짐짓 태연한 척, 애써 잊은 척 그렇게 40년을 하루 같이 살아냈다. 아직 1980년 5월은 한줄기 빛조차 들지 않았던 절망의 공간에 멈춰 선 시간이다.

계엄군의 총칼은 수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했고, 살아남은 자에겐 끊임없이 침묵을 강요했다. 5·18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탄압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숨지 않고 그날의 진실과 억울함을 말할 수 있기까지 또 한 세월이 흘렀다.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바깥 사람들은 오월을 잊어 가고 있었다. 심지어 역사의 과일을 인정하기 싫은 세력은 5·18을 폭도로 몰았고,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40년 전에도 없었던 중복 물이에 혈안이 돼 있었다. 5·18을 흡집 내고, 한국의 민주화를 부정하고 싶은 이들의 역사외치는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마시티’와 ‘518-062’

광주사태로 왜곡됐던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신군부 정권인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가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1997년 국가기념일이 됐다. 그해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 관련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을 확정해 광주 학살의 주범을 단죄했다. 이렇게 5·18은 22년 전 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우뚝 섰다.

20년 전 정립된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7일 전남도청에서 최후 향전을 벌이다 산화한 희생자 넋을 기리는 부활제를 끝으로 한 달여의 장정을 마쳤다. 매년 찾아오는 오월이지만 부활제가 끝나야 광주는 살아남은 자의 부채 의식을 털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번 오월은 예년과 달리 여운이 가시지 않는 대목이었다.

5·18 39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가 2015년 발표한 노래, 그리고 멤버 중 ‘슈가’가 데뷔 10년 전 내놓은 5·18 노래가 세삼 화제가 된 것이다. 이 두 노래로 인해 5·18에 관심 갖는 국내외 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BTS가 2015년 공개한 마 시티(Ma

City)는 멤버 3명이 작사한 곡으로 각자 자란 도시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중 특히 광주 출신 ‘제이홉’이 담당한 랩 가사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무등산 정상에 매일매일 … 내 광주 호시마다 전국 팔도는 거여 / 모두다 놀라라 062-518’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노래를 들은 해외 팬들이 가사에 나온 숫자를 궁금해 했고, 국내 한 팬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062는 광주 지역번호이고, 518은 5·18민주화운동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마 시티’가 관심을 끌면서 대구 출신인 ‘슈가’가 고2 때 만든 ‘518-062’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슈가는 이 노래를 ‘가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5·18민주화운동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만든 곡’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을 움직이는 팔다리가 되어버려진 몸에 상처를 태극기로 채워… 탁한 바람 가득한 땅 위에 내린 새싹 5-1-8 어둠던 지난날의 밤이 지나 탄생한 새 역사를 위해서 손을 들어 … 포장뿐인 자의 혀는 믿지 마’고 교생이 5·18의 역사와 현재를 꿰뚫는 가사를 썼다는 사실에 감동마저 전해 온다.

두 노래로 인해 BTS 공식 팬카페에서 활동하는 팬들은 5·18 관련 영화인 ‘택시 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를 추천하는가 하면 5·18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

기도 했다. 이중 제이비(JayVee)라는 미국 팬은 지난 4월28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콘서트’ 관람 직전 5·18도지를 참배한 해외 팬을 다른 광주일보 기사를 ‘성숙한 BTS 뒤에 성숙한 팬’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에 소개해 수천 건의 리트윗과 ‘좋아요’를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5·18 찬가

‘마 시티’와 ‘518-062’를 시간 날 때마다 들었다. 아이돌 노래가 생경할 수밖에 없는 50대들도 즐길 수 있는 곡이었다. 특히 슈가의 ‘518-062’의 첫 소절은 80·90년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불렀을 민중가요 ‘광주출전기’를 연상시킨다. 웅장한 리듬과 함께 터져 나오는 랩 가사 ‘go go go go five-one-eight’은 광주출전기 가의 ‘나가 나가 도청을 향해’라는 가사와 묘하게 오버랩되며 전율을 일으킨다. 아직도 이들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번엔 꼭 들어보기를 권한다. 5·18의 바람이 우리들이 바랐던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그답을 20대 청년들로부터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 내년에 40주년을 맞는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40주년 행사 기간에 광주에서 BTS의 ‘마 시티’와 ‘518-062’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chaek@kwangju.co.kr

은펜칼럼



이병우 단국대학교 외대 교수

“딱 선생 타입이네” “앞으로 선생하면 잘 하겠다”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일단 모나지 않은 성격에 착실한 편에 속했기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에 이런 소리 들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나를 잘못 본 거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선생은 안 될 거야”라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교사가되기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지만 80년대 대학 졸업 당시엔 교직으로 진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

선생 스타일

니다. 그리고 인기 직종도 아니었습니다. 급여도 많지 않은데다 스케일도 작고 도전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멀리 내다보지 못한 생각이었죠. 저의 부진까지 교육자였는데도 말입니다.

졸업 후 오라고 하는 ‘선생 자리’를 떠나고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선생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에 입사했는데 여전히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선생 타입이라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해서인지 ‘학자 타입’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는 아이디어 다 많고 틀을 깨는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니었나 봅니다.

첫 입사한 회사에서 직장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길게 있었습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업 생활을 마치고 다행히 대학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시간 강사, 산학

협력 교수, 외대 교수로 여태껏 강의와 코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겸임 교수 시절까지 합하면 강의를 15년 정도 했습니다. 선생 스타일이란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했는데 현재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 어른들의 안목에 새삼 감탄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눈에는 그게 뉘히 보이거나 봅니다.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 우울증이 왜 걸리냐?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걸리는 거다. 그런데 학생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긴 시간 동안 들어 준다. 이런 일은 돈을 주고라도 해야 하는데 돈을 받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강의하기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7년 발표 자료를 보면 2027년이 되면 프리랜서 비율이 정규직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

랜서의 55%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개월에 새로운 스킬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강의와 코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활동 내역을 집계해봤더니 교육 참가는 25개 과정 80일, 세미나와 컨퍼런 참가는 47회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선생 스타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스위트 스팟(Sweet Spot)을 찾으려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세상에 가치 있는 일,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이 스위트 스팟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저 또한 아직도 찾는 중이지만 선생 스타일이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내면이 그것을 원하는 힘이 강력했기 때문이겠죠?

기고

4차 산업 혁명의 쌀 ‘빅 데이터’



임세정 호남대 융합학부 교수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오랜 시간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만 하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일.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거 교통 예보가 어땠다였는가에 대해 기억해낼 수 있다. 주요 고속 도로를 통해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또는 현재 막히는 구간이 있는지 등의 단순한 정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도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차량 통행 정보 즉, ‘빅 데이터’로 차량의 흐름 파악하여 정확도 95%로 차량이 집중될 시간대를 알려주며 미래의 교통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다. ‘빅 데이터’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있으며 커다란 가능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빅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 그 실체를 선뜻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12년 ‘빅 데이터’라는 개념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얼마나 큰 양의 데이터인지가 모호했으며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빅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빅 데이터의 정의는 2001년 애널리스트 더그 레이니(Doug Laney)에 의해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으로 요약되었고 쉽게 분석 가능한 고정형 크기의 숫자, 문자 등의 정보의 형태뿐만 아니라 영상 및 이미지, 음원 파일, 문서 파일처럼 다양한 형태로 테라바이트(TB), 페타바이트(PB), 엑사바이트(EB) 이상의 크기를 가진 데이터를 실시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IBM은 여기에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신뢰성을 강조하며 정확성을 추가하여 정의하였고 최근에는 빅 데이터 저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의미하는 가치(Value)를 포함하는 등 더 많은 빅 데이터의 속성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빅 데이터는 데이터 수

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관리 등 빅 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술, 분석·예측 기술 및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공 기술과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등장했다. 빅 데이터 플랫폼으로 하둡(Hadoop)에서 고속 메모리 기반 분석이 가능한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가 부각되고 있으며 딥러닝 및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형 빅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되고 있다.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오라클(Orac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클라우드형 빅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BM, SAS, SAP, Oracle 등은 시각화 기술을 출시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텍스트 및 음성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공간 분석과 빅 데이터 서비스 기술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8년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의미하는 가치(Value)를 포함하는 등 더 많은 빅 데이터의 속성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빅 데이터는 데이터 수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 전반에서 빅 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가와 기업이 빅 데이터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사람, 플랫폼 등 세 요소이다. 예를 들면, 높은 품질의 실제 데이터 수집과 지능형 데이터 구축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빅 데이터 전문 기업의 성장 지원 및 빅 데이터 분석·개발 전문가 양성 등이라 할 수 있겠다.

빅 데이터 세계 시장은 연평균 10.6%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9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향후 6년간 연 평균 10.9%의 성장으로 2022년 2조 2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수년간 전략적 기술이 될 빅 데이터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데이터를 ‘4차 산업 혁명의 쌀’, 미래 신수출 산업,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꼽는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정비를 기대해 본다.

社說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조차 거부 안타깝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첫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직접 주민 설명회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전 후보지들이 반발한 것이다. 최근 전남도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곳 모두 반대한다고 회신했다 한다. 이들 자치단체는 설명회 장소 제공도 하지 않고 설명회 자료집도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무안군의 경우 전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설명회 개최 등은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강행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암군 역시 지역민 반대 분위기가 고조 등을 이유로 설명회 자료집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남군과 신안군도 군 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설명회 개최 등이

불필요하며 부정적 입장을 제출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회는 광주 전남 상성에 나선 이용선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3차 회담에서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나 전남도보다는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전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에 주어지는 지원 사업비 내역이 담긴 소책자·팸플릿 등도 이번 주 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설명회조차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회를 통해 지원책을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보다는 ‘내 앞마당에 해 주세요’라는 핼피(please in my frontyard) 현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한빛원전 사고 내팽개치고 해외 출장이라니

국내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업체식 위원장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태의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엄 위원장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영국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주요 9개국 원자력 규제 기관장들이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엄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전 업계 일각에선 한빛 1호기 사고의 심각성과 출장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극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원자로 출력 시험 과정에서 무면허 작업자에 의해 5% 이하로 유지돼야 할 출력이 순식간에 18%까지 치솟음으로써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직전까지 갔다”는 평가를 내릴 정

도였다.

또한 엄 위원장이 출장을 떠난 시점은 원안위가 한빛 1호기에 대해 사상 최초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조사에 나선 날이었다.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에 단순 정보 교류를 위해 자리를 비웠으니 “세월호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난 것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원안위는 현재 사무처장이나 위원 일부가 공석이라는데, 이처럼 조직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원장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형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원전 측은 한빛 1호기 출력이 25%가 되면 자동 정지되고 격납 용기가 있어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오죽하면 원안위의 ‘셀프 조사’는 믿지 못하겠으니 제3자에 의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無等鼓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로 정치권 안팎에서 ‘알 권리’ 논란이 일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찰이 난 것이다.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에서는 외교상 기밀누설 범죄라고 맞서고 있어 국회 개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알 권리’는 국민이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란 ‘국민은 정부에 공권력을 위임하고, 정부는 집행한 각종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추진 사업이나 예산·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도 예외가 있다.

국제 외교 전문가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김숙 전 유엔대사 역시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기밀 보존이고, 외교 회화에서 기본이다”라고 밝혀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더욱 공색해지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일국 외교’로 포장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자기 합리화도 모자라 이를 정쟁의 불쏘시개였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642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